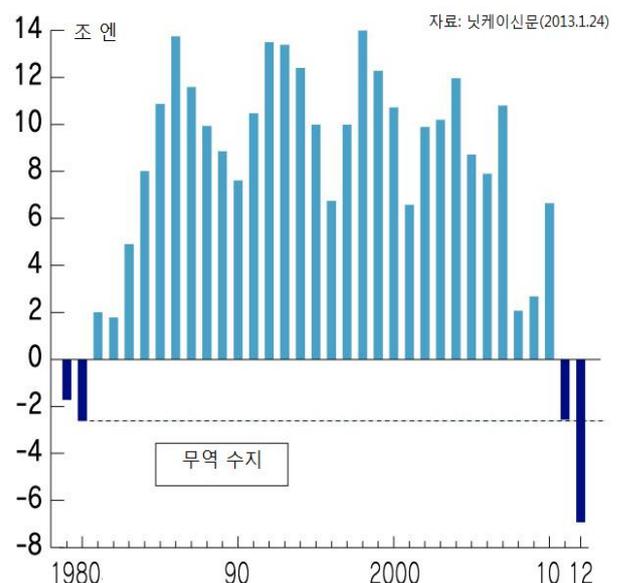


## 2012년 일본의 무역수지, 과거 최대 적자

-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'12년 무역적자(속보치)는 6조 9,273억 엔으로 과거 최대를 기록
- 중국, 유럽으로의 수출 침체와 원전 가동 중지로 화력발전용 LNG의 수입이 늘어난 원인으로 만성적인 적자가 우려됨

### □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012년 무역통계에 따르면 6조 9,273억 엔의 무역적자를 기록

- 수출은 전년 대비 2.7% 감소한 63조 7,446억 엔, 수입은 3.8% 증가한 70조 6,720억 엔
- 이는 2년 연속 무역적자로 제2차 석유위기로 인한 '80년의 무역적자 2조 6,129억 엔을 상회, '79년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
  - '12.12월 무역수지는 6,415억 엔으로 6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,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△5.8%, 수입은 1.9% 증가
  - 세계경제의 감축과 중일관계의 악화로 수출이 감소, 화력발전용 액화천연가스(LNG)의 수입이 큰 영향을 끼침
- 산업공동화 같은 구조적 문제와 에너지가격의 변동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,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적자에 빠지는 것에 대해 우려



<일본의 무역 추이>

(단위: 억 엔, %)

| 년       | 수출      | 증가율   | 수입      | 증가율   | 수지   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2000년   | 516,541 | 8.6   | 409,384 | 16.1  | 107,158 |
| 2001    | 489,792 | -5.2  | 424,155 | 3.6   | 65,637  |
| 2002    | 521,090 | 6.4   | 422,275 | -0.4  | 98,815  |
| 2003    | 545,483 | 4.7   | 443,620 | 5.1   | 101,863 |
| 2004    | 611,700 | 12.1  | 492,166 | 10.9  | 119,533 |
| 2005    | 656,565 | 7.3   | 569,494 | 15.7  | 87,072  |
| 2006    | 752,462 | 14.6  | 673,442 | 18.3  | 79,019  |
| 2007    | 839,314 | 11.5  | 731,360 | 8.6   | 107,955 |
| 2008    | 810,181 | -3.5  | 789,548 | 8.0   | 20,633  |
| 2009    | 541,716 | -33.1 | 514,994 | -34.8 | 26,712  |
| 2010    | 674,000 | 24.4  | 607,650 | 18.0  | 66,346  |
| 2011    | 655,464 | -2.7  | 681,112 | 12.1  | -25,647 |
| 2012(P) | 637,446 | -2.7  | 706,720 | 3.8   | -69,273 |

주: (P)는 속보치 자료: 재무성

□ 지역별 수출입을 보면 對美 수출이 증가하여 2년 만에 흑자규모가 증가한 반면, 對EU는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

- 對美 수출은 자동차가 23.8%, 자동차 관련 부품이 18.8%씩 증가, 수입이 3년 연속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유지
  - 일본의 전체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2.3% 증가한 17.5%로 중국의 18.1%에 육박

\* '12년 수출 11조 1,848억 엔, 수입 6조 819억 엔, 수지 5조 1,029억 엔

- EU 수출은 자동차,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감소, 수입은 3년 연속 증가

\* '12년 수출 6조 5,002억 엔, 수입 6조 6,399억 엔, 수지 △1,397억 엔

-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은 통신기 38.8%, 석유제품 23.3%, 원유 40.0%씩 증가, 음향영상기기는 25.4% 감소
  - 아세안으로의 수출 호조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.3% 증가한 16.2%를 차지

\* '12년 수출 34조 8,629억 엔, 수입 31조 2,915억 엔, 수지 3조 5,714억 엔

- 對中 수출은 원동기 34.3%, 철강 19.0%, 자동차 14.0% 감소, 수입액은 3년 연속으로 증가하여 과거 제2위를 기록

\* '12년 수출 11조 5,114억 엔, 수입 15조 327억 엔, 수지 △3조 5,213억 엔

<각국·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율>

(단위: %)

|          | 미국    | EU    | 아시아   | 중국  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2008년    | -15.9 | -7.8  | -1.1  | 0.9   |
| 2009     | -38.6 | -41.0 | -26.6 | -21.0 |
| 2010     | 18.8  | 12.8  | 28.9  | 27.8  |
| 2011     | -3.4  | 0.0   | -3.0  | -1.4  |
| 2012 (P) | 11.7  | -14.7 | -5.0  | -10.8 |

주: (P)는 속보치, 자료: 재무성

- 일본의 '12년 對韓 수출은 6,435만 달러, 수입은 3,885만 달러, 무역수지는 2,55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
- 일본과의 무역수지는 3년 연속 축소

\* 對일무역수지 추이: ('09)2,766만 달러, ('10)3,612만 달러, ('11)2,864만 달러, ('12)2,550만 달러

<일본의 '12년 월별 對韓 무역수지>

[단위: 백만 불]

|           | 수출     | 수입     | 무역수지  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2012년 1월  | 5,242  | 3,278  | 1,964  |
| 2012년 2월  | 5,698  | 3,503  | 2,195  |
| 2012년 3월  | 5,882  | 3,329  | 2,553  |
| 2012년 4월  | 5,496  | 2,751  | 2,745  |
| 2012년 5월  | 5,291  | 3,098  | 2,193  |
| 2012년 6월  | 5,094  | 3,403  | 1,691  |
| 2012년 7월  | 5,267  | 3,338  | 1,929  |
| 2012년 8월  | 5,100  | 3,108  | 1,992  |
| 2012년 9월  | 5,328  | 2,968  | 2,360  |
| 2012년 10월 | 5,369  | 3,292  | 2,077  |
| 2012년 11월 | 5,341  | 3,621  | 1,720  |
| 2012년 12월 | 5,241  | 3,090  | 2,151  |
| 누계        | 64,351 | 38,850 | 25,501 |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## □ 시사점

- 엔저의 진행으로 수출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, 생산 거점이 상당부분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엔저가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
  - 일본의 무역적자 원인은 중국 경제의 성장 감속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
- ‘12.11.8 재무성이 발표한 ’12상반기(4~9월) 경상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1.3% 감소한 2조 7,214억 엔으로, 경상수지가 적자로 될 가능성은 적음
  - 일본이 무역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TPP 등 무역경쟁 환경 정비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여 고비용 구조의 일본 국내 입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
- 對日 무역수지는 ’12.9월부터 3개월 연속 축소되어 한미 FTA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
  - 특히 일본은 중국과의 갈등으로 對中 수출이 감소되었으나, 한국의 對中 수출이 한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  - 그러나 에너지·자원 문제, 산업공동화 등은 한국 또한 일본과 공통적인 문제를 앓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추진하는 무역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

### <참고자료>

재무성, “2012년 무역통계(속보)의 개요” (2013.1.24)

닛케이신문(2013.1.24)